

영화보다 더 극적인 대한민국 '현실'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콩고물'의 문화 문법

'콩고물'은 과거에 정보부 직원이 "떡장사가 콩고물 안 문히고 어떻게 일을 하나?"고 해서 유명해진 말이다. 여기서 콩고물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외국인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다. '콩고물'은 '붉은 콩을 뿜아서 만든 가루'인데, 요즘은 '어떤 일이나 남에게서 공짜로 생기는 조그마한 이득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 되었다.

예문으로는 "태호는 기장떡에 콩고물을 문혀 먹었다." "정치자금을 건다보면 콩고물 좀 떨어지나요?"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작은 이득'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초들은 '높은 분'들이 콩고물을 문혀 가면서 해 주든지, 맨입에 해 주든지 하는 것은 관심 없다. 그저 나라가 평안하고 월급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만이 최고의 바람이다.

지나치게 정권을 잡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다 보니 입법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 저쪽 동등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중부대 한국어학과 명예교수 한영아문학회장



조희문의 영화세상

영화평론가
前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실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모든 영화의 목표이기도 하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만드는가에 따라 평가도 달라진다. '넌하'는 고대 로마의 풍속을 재현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남북전쟁 당시의 미국 남북 상황을 그린다. '스타워즈' 시리즈는 상상의 우주를 그럴듯하게 보여준다. 서부영화는 카우보이나 총잡이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는 연합군이나 독일군의 복장·무기들을 고증을 받아 재현한다.

현실이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다고 느낀 적이 두 번 있었다. 하나는 미국의 9.11테러 당시 테러범들이 납치한 여객기를 몰아 월드트레이더 센터에 충돌했을 때다. 승객을 태운 여객기가 해당 건물에 충돌하자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그 건물은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렸다. 영화에서 이런 장면은 실제와 같은 모형을 세우거나 컴퓨터그래픽(CG)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장면의 질감은 실제와는 비교도 안 된다. 영화는 그야말로 눈속임 수준이다. 사람을 태운 비행기로 실존하는 건물에 부딪쳐 무너지는 장면은 영화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두 번째는 남자였던 하리수라는 연예인이 법적인 여자로 인정받은 일이다. 남자가 여자로 성이 바뀌다니.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다. 내 평생에 이 두 가지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을 것이라 믿었지만,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 생각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짧았다는 것을 고백한다. 세 번째로 놀란 일은 이재명 같은 범죄자가 고개를 쳐들고 대통령 권력까지 노리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재명이 어떤 인물인가.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부어댔다. 사람은 지위가 높아져 권력을 가졌을 때, 화가 났을 때, 게임이나 사업을 하다 돈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를 보면 그 인격 또는 본성이 드러난다고 했다.

이재명은 넉넉하지 않은 성장 환경을 이겨 내고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세속적으로 말하면 개천에서 용이 난 경우이지만 그 용이 한 것거리는 미꾸라지보다 형편없었다. 형수에게 한 쌍욕은 보통 사람이라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지경의 것이었다. 그에 대해 이재명은 모른 척 넘어갔다. 비난 여론이 들끓어도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성남 시장이나 경기도 지사 시절에는 공직자가 아니라 왕조 시대의 왕처럼 행세했다. 법안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흥청망청 써댔다. 공무원 인건비로 수발되는 측근들을 위장 채용했다. 생색나는 일은 전부 자기 공이고 문제가 되는 일은 부하들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일 뿐 자기는 모른다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렸다. 주변 사람들이 차례로 목숨을 끊어도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면면을 바꾸었다.

그의 아내 역시 호가호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무 직함도 권한도 없는 평범한 주부가 왕비처럼 굴었다. 공무원을 몸종 부리듯 했고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법안카드를 아무 거리지 없이 자기 돈처럼 써 버렸다. 관용차도 개인 전용 자가용처럼 타고 다녔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재명이 성남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벌인 각종 사업은 온갖 불법과 특혜로 얼룩졌고 종류도 다양했다. 대장동 불법 의혹과 백

현동 부지 특혜 논란·성남 FC 사건·위례신도시 불법 의혹·정자동 호텔 건립 사업 특혜 의혹·위증교사 사건·선거법 위반 사건·대북 송금 사건·변호사비 대납 의혹·경기도 지역화폐와 코나아이 연루 의혹 등등 손으로 꼽으면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다.

이재명이 국회의원이 되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에는 듣도 보도 못 한 입법독재가 무엇인지 시범이라도 보이는 듯 마구잡이 법률을 쏟아 내고 행정부의 장관이나 기관장을 무차별 탄핵하고 있다. 몇 차례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도 멈추는 기색이 없다. 현재에서 기각 결정을 받더라도 그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기간 동안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을 수사한 수사 검사에게도 탄핵을 걸어 직무를 정지시키는 일도 벌어졌다.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졌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마저 탄핵해 버렸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탄핵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는 재적의원 과반수 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우긴 국회의장의 우격다짐에 묻혀 버렸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관저에까지 진입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 모두가 이재명의 범죄 처벌을 막기 위한 발작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다. 닭장 속에 뛰어난 족제비가 마구잡이로 닭을 사냥하듯 더불어민주당은 조폭 수괴의 톨마니 노릇을 하고 있다. 더 멀리는 범죄자도 독이라도 우리 편이면 무조건 찍어 주는 전라도 유권자들의 맹목적 지지가 만들어 낸 난장판이다. 더구나 단발 사건이 아니라 과노라마처럼 이어지는 요지경이다. 그 어떤 영화보다 험악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것이라고는 꿈에서도 생각 못 했다.

軍지휘부 학살과 동별 논란의 딜레마



데일리 Talk

장혜원
정치사회부 차장대우

"문재인정부가 '군 적폐 청산'이란 명목으로 쿠데타 세력으로 음해해 해체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에 연루됐던 군 출신들, 그들은 무고하게 잡혀가 국가에 충성했다는 이유로 본인과 가정까지 폄비박산 났다. 그리고 씩다 버린 검처럼 버려졌다. 운칠기삼으로 정권 잘못 만나 재판에 넘겨지면 인생 박살 나고 회복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장성들의 '국회 눈물 청문회' '야당 의원 무단 인터뷰' '기습 기자회견' 등을 두고 국군 '동별 논란'이 거세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자발적 항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야당에 포섭되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배신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군 기강 해체' '군 내부 붕괴' 등을

운운하며 군을 야유·조롱의 대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 기자가 만난 군 출신의 항변은 이와 같았다. 이들은 "군기의 문제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명령에 복종했다는 이유로 내란죄 주요 행위자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으며 무혐의가 나더라도 변호사 비용·날아간 군 연금·평생을 쌓아 온 경력 등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는 게 군 지휘관의 낙엽 같은 위상이라는 것이다.

실제 문 정부 당시 '군 적폐 청산' 목적으로 기무사 해체 작업에 걸려든 부대원 200여 명은 박근혜정부 탄핵 국면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내란 음모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됐다. 전원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기무사는 해체됐다. 후신인 방첩사는 '군무원 블랙요원 신상 유출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보안이 와해됐다.

소식통들은 "그 누구도 명예 회복을 못 했으며 대부분은 패가망신 수준의 재정적 피해를 봤고 몇몇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누구도 증발한 안보와 지휘부 리더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군 생활이 마치 한차례 정권의 역풍에 공개 처형당하는 러시아인 율트

같다"고 입을 모았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의 정치 이념에 휘말리면 군 지휘부가 '최상' '제1'의 대상이 된 후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공격을 일방적으로 받아야만 한다는 '기무사 트라우마'가 당시에 정착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사태로 직무 정지 및 보직해임이 되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에 의해 수사 대상이 된 장성들도 마찬가지 뒷에 빠졌다. 이들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지휘 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국군방첩사령부·국군정보사령부·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등으로 국방부·군 총참모부 중추 역할을 도맡은 이들이었다. 육사 46~56기수출을 이루는 엘리트 지휘관으로 국가안보에 직결된 최고 지휘 권한을 총괄한 존재들이다.

육사 동문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함께 군 생활을 했던 이들의 증언은 '지독한 위cker홀릭'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성품의 리더십을 지녔다는 데 모였다. 공정 경쟁으로 진급해 '별 중의 별'로 꼽혔던 주요 사령관들이 이번 사태로 '육사 카르텔' '총안파' '용현파' 등의 사조적 오명까지 뒤집어졌다. 수갑

을 차고 포토라인에 섰으며 한순간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업적을 잃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장 군 내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국군 핵심 안보 자산을 한순간에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비롯해 후세대가 사태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다. 설상가상 무너진 군기강과 처벌의 모습을 생중계로 목격하는 중간 간부들의 대거 전역 예정 소식 이 불똥 쏟아지듯 한다.

하명된 지시에 따랐으나 좌우 이념 이데올로기로 좌지우지되는 양극화된 정치권에 군 지휘관 리더십이 한순간 '집단 학살'당하고 증발한다는 것. 그것이 '동별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성들의 눈물에 담긴 진짜 의미였는지 모른다.

현장에서는 군인사법의 개정이 절박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소한 명령에 복종한 지휘관들의 무고함이 증명됐을 경우 이들의 지휘관과 보직 및 처우 등에 대한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자는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장성'의 모습은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법적제도적 절차가 완성된 군 조직에서 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hyjang@skyedaily.com

SkyeDaily
발행·편집인 조정진 논설실장 박선옥
인쇄인 임태형 편집국장 박용준

(주)스카이드일리
창간일자 2011년 9월 2일
등록일자 2011년 7월 18일
등록번호 서울가150131(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아01703(인터넷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6(충정로1가 청양빌딩) 7층
TEL 02-522-6595 Fax 02-522-6597
홈페이지 www.skyedaily.com
구독료 월 20,000원/연 240,000원

THE BEST TRAVEL FOR YOU!!

여행의 모든 것
굿트래블에서
당신과 함께합니다

굿트래블 1588-6861

Super Limousine
Good Travel
(유)굿트래블
www.gtbus.co.kr